

2월중 해외자원개발협 설립된다

석유·광물 60개사... 에진협 산하에 포함

석유개발 업계와 광물개발 업계가 뭉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오는 2월 중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30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2월 중순 창립총회를 거쳐 2월중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모체는 대한석유협회 내 석유개발팀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석유협회 석유개발팀의 회원사로 있는 18개의 유전개발 회사와 이외 20여 개의 유전개발 회사, 광물개발 업체 40개를 합해 총 8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협회가 창설되면 석유협회에 있는 이철규 팀장을 중심으로 한 석유개발팀은 따로 분리된다. 또한 현재 패키지형 자원개발 동반진출을 위해 구성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에진협)'도 해외자원개발협회 산하에 두게 된다.

에진협의 회원사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외에도 전력, 건축 등 동반진출 기업과 플랜트산업협회와 수출보험공사 등 자원개발 지원기관을 두고 있어 향후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 ERP 프로젝트 준공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2월 5일 공사 대강당에서 액센츄어(Accenture), SK C&C, SAP Korea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2단계 프로젝트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 원료로 세계 선진 석유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전사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3년 8월 글로벌 국영석유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 작업'을 시

작으로 재무 중심의 1단계 프로젝트를 지난 2005년 11월 완수했다.

석유공사가 준공한 ERP 시스템은 대부분의 선진 석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SAP(Systems Applications & Products in data, ERP 제품명)기업통합관리 패키지를 활용해 구축하였다.

STX에너지, '해외 발전사업' 본격화

STX에너지가 해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STX에너지(대표 이상욱)는 최근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주정부와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STX남산타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강덕수 STX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상욱 STX에너지 사장, 이즈메스 압둘라 리아우제도 주지사, 토미 임마누엘 빈탄 파워플랜트사 대표이사, 주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STX에너지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리아우제도에 위치한 빈탄 섬에 100MW급 화력 발전소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게 된다.